

“생각을 바꾸라”

열왕기하 5장 1-14절

본문의 말씀은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왕의 군대장관이 치명적인 병인 나병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작은 계집아이의 말을 듣고 왕에게 부탁하여 왕의 친서와 귀한 선물을 가득가지고 선지자를 찾아가지만 직접나와 맞이하지도 않고 사환을 보내어 요단강에 일곱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아만은 노를 밭하여 아니 내가 왔으면 선지자가 직접나와 환부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땅하거늘 우리나라는 이런 강이 없어 강에 들어갔다 오라고 하느냐 하고 흥분하여 돌아가려고 했을 때 종들의 만류로 요단강에 들어가 일곱번째 몸을 담구었더니 몸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은,

1. 생각의 고정관념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1)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하 5:5) 아람 왕이 이르되 같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십 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나병을 고치기 위해 이스라엘로 가는 그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선물을 잔뜩 가지고 갑니다. 나아만에게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값비싼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면 그 유명한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밖으로 뛰어나와 자기를 기쁘게 반겨줄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자신의 병을 즉시로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는 돈을 인생의 최고 가치에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자녀들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선교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불의한 방법이 아닌 선한 방법으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만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겸손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사용될 때에 가장 귀한 물질이 됩니다.

2) 권력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왕하 5:9)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는 수많은 말들과 병거와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병을 고치러 가는 환자 치고 굉장한 행렬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나아만은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천하의 엘리사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거창한 행렬을 보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지는 못합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이름을 들어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는 미국 닉슨 대통령 시절, 대통령 보좌관을 지낸 미국 권력의 최정상에 올랐던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먹은 것은 기필코 해내고야 마는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워터 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철저히 변화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감옥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권력이 모든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았던 것입니다. 돈이나 권력으로는 사람을 굴복시킬 수 없지만 사랑으로는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3) 자기 생각과 경험이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왕하 5:11)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왕하 5:12)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요단강 물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이

훨씬 맑고 깨끗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따라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담그는 것보다, 자기 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에 몸을 담그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권고를 따르기 보다는 이제까지 살면서 겪었던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의 경험과 생각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기에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사 40: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하라**

그럼 나아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아람 나라 군대장관인 나아만은 늦게나마 하나님의 기준을 따랐습니다. **(왕하 5:14)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만약에 나아만이 자기의 경험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 자기의 치명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며,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까요? 그것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아만 장군이 일곱 번 씻은 요단강 물에 어떤 효험이 있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그 순종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여리고성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일주일간 돌다가 소리를 질러 그 바람에 여리고 성이 내려앉은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어리석기 짝이 없게도 오천명 앞에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개를 가져오는 그 순종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 그들을 다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 6번째까지 상처부위에 진물이 흐르고 전혀 낫지를 앓았습니다. 어쩌면 더러운 물로 인해 상처가 더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낙심이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까? 상황이 전혀 호전될 기미도 없습니까? 그러한 분들에게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포기하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신앙인들은 모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언어를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다에서 할 수 있다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노만 빈센트 필목사님은 이 세상은 할 수 있다는 사람을 통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변하면 인생은 분명히 변합니다. 심리학자인 쉐드 험스테더 박사는 우리가 하루에 5-6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생각 중에서 85%는 부정적인 생각이며 단 1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석하느냐가 그날의 행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되어 멋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눔의 시간

1. 예수 믿고 나서 바뀐 성격이나 생각을 나누기 바랍니다.
2. 현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솔직히 나누기 바랍니다.
3. 주위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이라고 합니까? 긍정적이라고 평합니까? 본인은 어떻습니까?